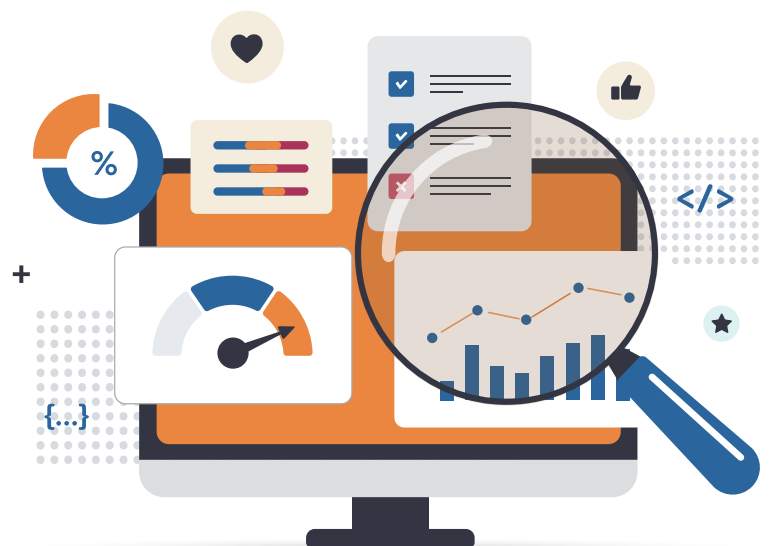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발행일 2026. 4. 19.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2026 Vol.03



AI 시대, 왜 다시 '독서'와 '문해력'인가? : 기술의 정점에서 교육의 길을 묻다

이병기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 AI 시대, 질문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오히려 제대로 읽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독서의 가치는 과거에 비해 더 커진 것이다.
- 🕒 독서 문화의 허브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양적으로 성장하여 기반은 충분히 구축되었다. 이제는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독서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 질문보다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AI와 함께 자란 AI시대 아이들에게 독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이유다.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을 독서를 통해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독서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왜 다시 독서인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정보는 '찾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것'이 되었으며, 생성형 AI는 복잡한 질문에도 몇 초 만에 정제된 답을 제공한다.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 영상, 음성이 결합된 멀티 모달(Multi-modal)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정보의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 모든 지식이 클릭 한 번으로 요약되는 이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느리지만 깊이 있는 독서를 필요로 하는가?

정보는 넘치지만, 이해는 깊어지지 않는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는 즉흥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긴 호흡의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맥락을 따라가고, 논리를 해석하며, 의미를 재구성하는 경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사고는 단편화되고 깊이 있는 판단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각을 지키는 행동이다. 독서는 느리고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 속에서 인간의 사고는 깊어진다. 문장을 따라가며 의미를 구성하고, 저자의 논리를 이해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 과정은 고도의 인지 활동이다.

생성형 AI는 정답처럼 보이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느냐이다. 질문의 수준이 결과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깊이 있는 사고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었다.

결론은 분명하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은 기계의 몫이 되지만,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며 고유한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고는 오직 인간만의 영역으로 남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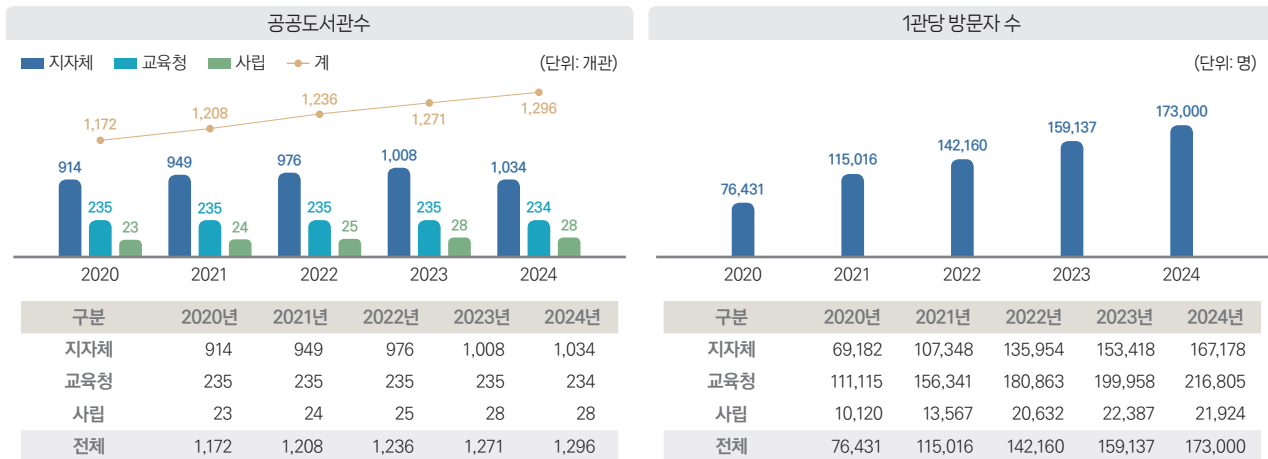
독서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만큼 AI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서관과 같은 독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그리고 전략적인 독서교육은 현재 꼭 필요한 과제이다.

독서 문화의 허브, 도서관의 양적 성장

독서 문화의 허브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관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특히 지자체에서 설립한 도서관의 확대가 전체 성장 추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설립한 도서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173,000명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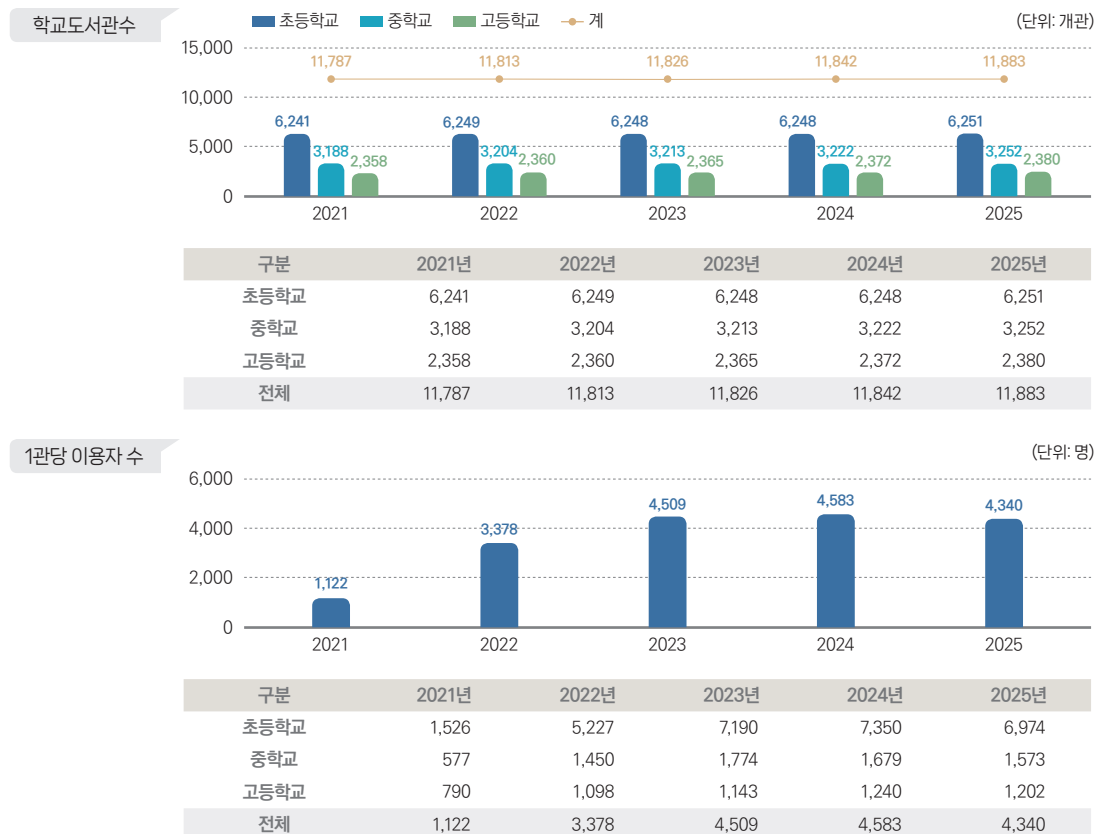
그림1 공공도서관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5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학교도서관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안정적인 유지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학교도서관 1관당 이용자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안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2 학교도서관 현황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학교도서관 주요통계(2025년 기준)

독서교육을 위한 노력

교육부는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 학기 한 권 읽기, 인문독서 교육' 등 독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독서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독서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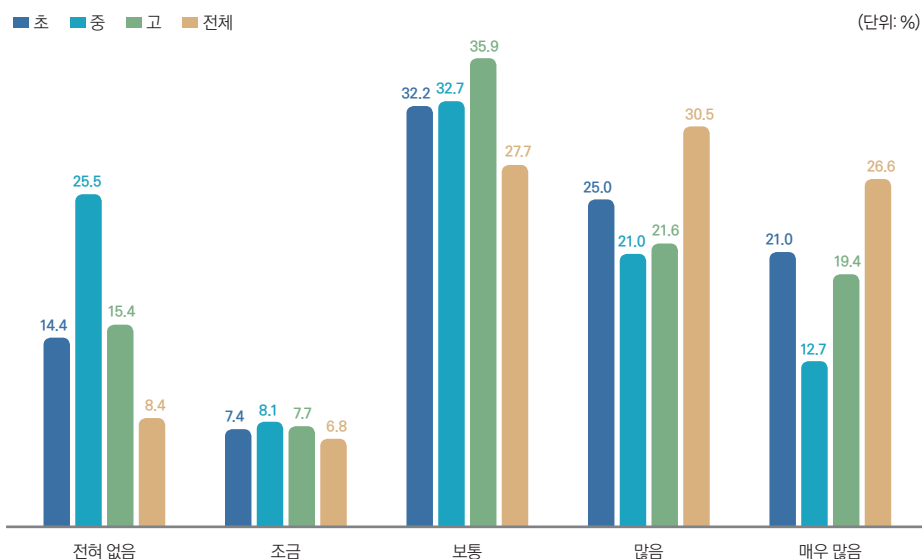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수업 연계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내 인생 책 세 권'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인문 고전을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탐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과 연계 독서교육을 전면 확대하고 교사용 수업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백독백습'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 읽기와 자기주도 학습을 결합하여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독서를 단순한 활동이 아닌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기반 역량'으로 재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인식

경기도교육청 학생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교육활동이 도서관 및 책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매우 많음~보통)은 초등학생(84.8%), 중학생(76.9%), 고등학생(66.4%) 순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서 태도와 참여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효과가 학령 초기 단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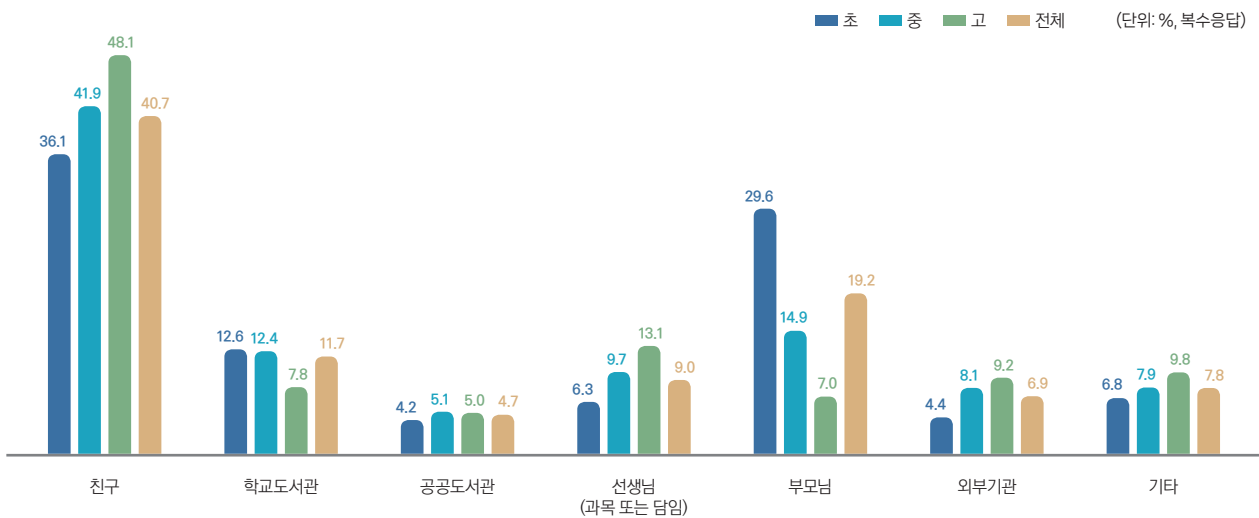
그림3 학교도서관 교육활동 참여 만족도에 따른 영향



출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2024), 2024 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

한편, 학생들은 친구가 책을 추천했을 때(40.7%)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의 독서 생활에서 또래 관계(친구)가 핵심적인 매개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책을 읽게 만드는 독서 동기 유발자



출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2024), 2024 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

독서교육의 방향

독서가 학생의 일상에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해 가르치고, 독서를 통해 배워야 한다. 독서가 이벤트성 행사나 부가 활동에 머무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독서는 학생의 일상 즉, 수업 시간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교과 학습독서'이며, 세계 주요국이 주력하는 독서교육의 방향이기도 하다.

호주의 Australian Curriculum (F-10)은 영어뿐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든 교과 성취기준에 문해력 요소를 통합하여, 교과 학습과 읽기·쓰기 능력이 동시에 발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독서를 통한 수업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각 교과의 문해 요구를 명시하고, 읽기·쓰기·의사소통 능력이 수업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문해력을 독립된 영역이 아닌, 교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도구이자 핵심 역량으로 보고 교육과정 구조 속에 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독서 전·중·후 활동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멀티 모달 텍스트를 선정하며,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읽는 QAR(Question-Answer Relationship) 전략, '훑어보기-질문 만들기-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기-읽은 내용을 정리하기-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진행하는 SQ3R 등 전문적인 독서 전략을 녹여낸다면 '잘 읽는' 학생을 길러낼 수 있다.

기술을 넘어 인간으로

AI 시대의 교육은 더 이상 무엇을 아는가를 묻지 않는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사고하지 않는 인간은 그 기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술에 의존하는 학습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도구로 삼아 인간의 사고력을 확장할 것인가. 그 출발점은 분명하다. 바로 독서다. 독서는 느리지만, 가장 강력한 학습이다. 

참고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6), 학교도서관 주요통계(2025년 기준)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2024), 2024 학생독서실태조사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이병기 (2025),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역할과 과제, AI시대 교육대전환 독서국가로 가는길: AI시대, 왜 다시 독서교육인가?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